

삶과 기억의 궤적을 좇는 자유분방한 여정

류동현 미술 저널리스트(Yu Tonghyun | Art Journalist)

커다란 작품 앞에 선다. 무작위적이고 즉흥적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비비드한 원색의 선이 화폭을 휘감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선의 뒤로는 커다란 붓의 흔적과 흘러내리는 물감의 흔적, 색으로 메워진 다양한 형태의 면이 자리잡고 있다. 처음 봤을 때 무질서하게 보이는 선과 색의 향연이 당황하게 하지만(좋은 의미에서), 볼수록 그 경쾌함이 마음에 와 닿는다. 즐거운 작품이다.

세상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처음 만났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드물지만 이러한 사람을 만난 날은 하루종일 즐겁다. 입가에 미소가 절로 떠오른다. 조현선의 작품이 그랬다. 작업실에서 그의 작품을 처음 보았을 때 커다란 화폭을 휘감는 자유로운 선과 색의 흐름들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견고한 현실의 도상을 보이는 화면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유분방한 경쾌함이 느껴졌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예술가들은 두 가지 전략을 취하게 된다. 하나는 자신이 생각했던 이미지를 구상화함으로써 대부분의 관객들과 공감하고 공유하는 것이고, 자신만의 생각을 좀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이어 관객들에게 낯설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술가가 잡아당긴 줄다리기의 거리가 시각예술에서 보여주는 아방가르드함의 심도(深度)이고 그 심도가 컨템포러리 아트의 역사일께다. 사실 컨템포러리 아트, 동시대 미술을 살펴보면, 위의 두 가지 방향성은 이미 극한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도상적으로 구상과 추상을 비롯해, 작품을 구성하는 매체의 확장, 작품을 느끼는 오감의 확장으로 이제 미술이 아닌 것이 없다.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미술'이라고 부르면 이는 바로 '미술'인 것이다. 회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진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하이퍼리얼리즘부터 추상화까지, 그 스펙트럼의 진폭은 이제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1910년 바실리 칸딘스키가 <무제>라는 제목의 수채화로 현대 추상화의 기원을 열었다고 한다면, 약 100여 년의 세월 동안 추상화의 흐름도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다. 조현선은 자신의 작업에 대한 줄다리기의 방향을 추상으로 잡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젊은 감성이 충만하고, 그렇기에 더욱 생명력이 넘치고 경쾌한 추상화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었다. 재미있는 점은 추상을 자신의 작업에서 대중(大宗)으로 삼아도, 그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의 풍경을 놓지는 않는다. 아마 그 지점이 조현선의 작업을 독특하게 만들고 주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싶다. 즉 조현선의 추상화는 추상과 구상이 하이브리드된, 묘한 접점의 장소를 보여준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차근차근 살펴볼도록 하자.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신형철은 '정확한' 비평에 대해 설파했다. 동감한다. 쉽진 않겠지만, 필자 또한 조현선의 작업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작가의 삶과 작품 속으로 좀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조현선의 작업 이력이 꽤 독특하다. 국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던 중 어렸을

때부터 관심사였던 '외국에서 생활해 보고 싶다'는 꿈을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미국행을 감행했다. 처음에는 미국 동부에 자리를 잡았지만, 분위기가 별로 맞지 않았다. 2001년 9.11테러 이후 2002년 미국 서부로 옮겼다. 그리고 이는 그의 작업 이력에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사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서부는 미술의 조류가 꽤 상이하다. 동부는 개념미술이나 팝아트가 강세라면 서부는 회화나 표현주의 작품이 주류였다. 샌프란시스코의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San Francisco Art Institute)를 졸업하고 같은 도시의 캘리포니아 컬리지 오브 더 아트(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면서 조현선은 추상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삶은 흔적이고 모든 것의 역사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조현선의 작업은 추상이지만, 구상적 요소가 개입되는 독특한 지점이 있다. 한국에 들어와 스튜디오 박영에서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개최한 개인전 <버려진 보석을 걷다(Walking Through abandoned jewels)> 전시를 보자. 여기에 출품한 작품의 제목 또한 <버려진 보석을 걷다>이다. 여기서 작가는 선과 면, 색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선보이는 데, 단순히 붓과 물감으로 화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라인 테이프와 스프레이 등 매체의 확장을 통해 화면의 구성에 다양한 변주를 가했다. 색과 물감의 흔적, 마크, 도식 등을 더하고 지우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자신이 가진 추상의 언어를 더욱 강화시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제목 <버려진 보석을 걷다>이다. 작가의 작업 제목을 보면 매우 내러티브적이면서 구체적이고 동시에 시적(詩的)이다. 올해 제작한 <색을 걷는 밤>, <은행을 밟고 가는 남자> 시리즈 등, 작품의 제목을 매치시키면서 화면을 바라보면, 추상 속에서도 그 제목에 맞는 구상적인 요소들이 약간씩 남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색다른 경험이다.

추상과 구상의 관계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소재와 주제도 약간이나마 엿볼 수 있다. 작가는 도시를 걷는다. 자신의 삶과 일상, 그 기억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도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변을 걷거나 둘러볼 때 작가의 눈에 띄는 요소들이 있다. 도시 골목길을 스프레이로 휘감은 그래피티 라든지, 버스 정류장, 버려진 독특한 건물, 조형물, 나무, 하늘... 모든 것이 그에게는 화면을 채울 소재이자 흔적이다. "삶은 흔적이고, 모든 것은 역사다"라고 작가가 이야기하듯이, 모든 것은 무(無)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돌아갈 수 없다.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과정의 역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말이다. 그래서 조현선에게 화면의 선과 면, 색은 자신이 바라본 세상의 흔적이자 자신이 행한 작업의 역사이자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는 궤적의 산물이다. 작가의 작업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경험된 공간과 상황에 대한 기억과 감정을 페인팅으로 재구성하며, 어쩌면 재현될 수 없을 지도 모르는 지나간 지각 감각에 대한 경험을 색, 마크, 도식, 모양, 낙서 등을 통한 반복적 행위를 어떠한 위계질서도 없이 평등하게 캔버스에 겹쳐 그린다." 작가는 작업을 통해 '삶을 증언한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가고 싶은 지를 이야기한다. 이 때문에 그의 화면에는 추상과 구상이 공존한다. 문자 그대로 화면에 존재하기도 하고, 추상의 형식과 구상의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구상보다 추상이 더욱 사실적이다

즉흥적이고 무작위적이며 자유분방한 화면의 이면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웨스트 코스트 재즈라는 음악 흐름이 있다.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유행했기에 이러한 이름을 얻었는데, 뉴욕 중심의 즉흥적인 비밥 재즈와는 달리 쿨재즈의 일종으로 지리적, 기후적인 특성이 반영된 가볍고 부드러운 사운드가 특징이었다. 이후에도 이들 재즈 특징은 각 악기 파트간의 절묘한 조화를 중시했고, 이러한 분위기에서 현대적인 12음 기법 등의 도입 등 자유롭고 즉흥적인 연주보다는 지적이고 쿨한 느낌이 더 강하다. 조현선의 작업을 음악에 비유한다면 그런 느낌이랄까. 웨스트 코스트 재즈처럼, 실제로 샌프란시스코라는 웨스트 코스트에서 형성된 그의 화풍은 가볍고 쾌활한, 그리고 쿨하면서 '지적인' 그루브가 느껴진다. 다시 말해 즉흥적이고 무작위적으로 굿거나 칠한 선, 혹은 색처럼 보이지만, 조현선의 작업에는 정교한 작업 논리가 개입되어 있음이 엿보인다.

이러한 작가의 논리는 최근 작업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작가의 포트폴리오 마지막에 <색인의 풍경(Indexical Landscape)>이라고 쓰인 장이 있다. 'indexical'은 '색인의', '색인의 성질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색인'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1. 어떤 것을 뒤져서 찾아내거나 필요한 정보를 밝힘. 2. 책 속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단어나 항목, 인명 따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하여 놓은 목록"이라고 정의한다. 즉, 그의 작업은 단순히 무작위적이고 기분에 따른 추상이 아니라, 자신이 수집한 일상의 목록과 기억의 목록이 '선택적으로' 첨가되고 삭제되는 가운데 정교하게 계산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화면은 자유분방하지만, 동시에 안정적이다. 그래서 작품을 보았을 때 기분 좋아지는 감각이 일깨워지는 지도 모르겠다.

올해 세상에 내놓은 작업은 좀더 다양하고 정돈되어 있다. 여전히 자유분방한 붓질과 물감이 흐르는 자국, 라인테이프를 이용한 선과 흔적 만들기, 면과 그 속을 채우는 색의 명징함이 믹싱되어 있지만, 좀더 탄탄해진 느낌이 든다. 올해 제작한 <색을 걷는 밤>은 이러한 느낌을 잘 보여준다. 이와 함께 좀더 색다른 작업 방식도 선보였다. 이는 올 봄에 백령도에 답사를 다녀와서 등장했다. 진행이 중단된 <평화미술프로젝트>를 위한 작업이었다. <사월회색>이라는 제목의 몇몇 작품은 선의 흐름이 아닌 점(Dot)의 향연이다. <겹겹이 쌓인 생각들(Layered Thoughts)>, <다이아몬드(Diamond)>, <은행을 밟고 가는 남자> 1, 2, 3과 인천아트플랫폼 전시장에서 열린 <진경공원>전에 참여하면서 선보인 <노 슈가(No Sugar)>, <블랙 월(Black Wall)> 등은 작가 자신의 작업 세계관이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거대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구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을 막론하고)에 대한 세세한 관심이 조현선의 화면 속 자유분방한 선과 색, 면 속에 녹아 있다.

일본 만화가 카리야 테추가 그린 요리만화 <<맛의 달인>>에 이런 대사가 등장한다. "과연 방어를 눈으로 보며 즐기는 것보다 그 맛의 진수를 흡수한 무 한 조각이 더욱 생생한 진짜 방어론의 존재를 느끼게 해준다.... 구상보다 추상이 더욱 사실적이란 소리군...." 조현선의 회화를 요약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